

# 인천 선언문

## 1. 서언

- 1.1 2019년 8월 29일~30일,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한국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박양우(朴良雨)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뤼수강(雒樹剛)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 昌彦) 일본국 문부과학성 대신(이하 3국이라고 한다)이 참석하였다.
- 1.2 3국은 지난 10회에 걸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본 회의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상대국 문화의 이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 1.3 3국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등을 통해 3국의 문화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3국간 활발한 문화교류와 협력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2. 한·중·일 문화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10년

- 2.1 3국은 앞으로의 한·중·일 문화교류와 협력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하에 서로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2.2 3국은 향후 10년간의 문화교류와 협력 활동에서의 미래세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서로 간의 신뢰 및 우의 증진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이 기후 변화, 고령화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문화적 대응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화와 과학기술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3.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지속 강화

- 3.1 3국은 한국 순천시, 중국 양저우시, 일본 기타큐슈시를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가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사업들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한·중·일 청소년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3.3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와 아세안문화도시 및 유럽문화수도 간 교류 협력을 장려하고, 이들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할 방안을 강구한다.

3.4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로고 제작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고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시 발표를 목표로 동아시아문화도시 로고 제작을 완성한다.

3.5 3국은 문화도시의 교류와 실질적인 성과를 전 세계에 공동으로 알리기 위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웹사이트 구축과 데이터 수집 및 아카이브 공유를 위한 지원을 시행하기로 한다.

3.6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아시아문화도시 관계자의 참여와 조언이 불가결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전문가와 동아시아문화도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3.7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업을 포함한 제반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4. 3국 올림픽 연속 개최 계기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증진

4.1 3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한·중·일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3국의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도 한·중·일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4.2 특히,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한·중·일 공동 문화프로그램과 같이 한국 및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5. 문화예술 교류협력 지속을 통한 한·중·일 이해 증진

5.1 3국은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 동아시아 문화교류 사절단,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등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통해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3국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여 왔음을 인식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5.2 3국은 3국의 국립박물관 간 협력, 국립도서관 간 협력, 국립미술관 간 협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공공 문화예술기관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 간의 교류 협력도 지원 및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5.3 3국은 한·중·일에 설립된 각국의 문화교류기관이 문화교류 증진과 협력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도 3국 간 문화예술 교류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6. 문화산업 교류를 통한 한·중·일 경제 활성화 기여

6.1 3국은 문화산업이 한·중·일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을 문화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한다.

6.2 3국은 문화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3국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해 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6.3 3국은 문화 발전과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품 콘텐츠의 유통 촉진과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3국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 7. 문화유산 보호 및 교류 협력 지속 추진

7.1 3국은 각자가 보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문화 정체성 확립 및 문화 다양성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전문가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2 3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CRIHAP),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연구센터(IRCI)의 활동을 지지한다.

7.3 3국은 무형문화유산 계승자 및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의 관련 교류·협력을 장려한다.

## 8.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 촉진

8.1 3국은 이번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의 동시 개최가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일임을 인식하면서 한국이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의 동시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환영한다.

8.2 3국은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9. 3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한·중·일 문화 교류 및 협력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한·중·일 문화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사무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부장  
뤄수강

일본국  
문부과학성 대신  
시바야마 마사히코